

몽골의 농목축업 현황과 전망

1. 농목축업 현황

□ 주요 산업의 하나로 2008년 GDP의 18.8%를 차지

○ 농목축업은 2008년 GDP의 18.8%, 산업생산의 20.0%, 총수출의 14.5%, 고용인구의 58.1%를 차지하였음.

- 산업별 GDP 비중(2008년)은 서비스업이 42.7%로 가장 높고, 주요 외화 획득원인 광업이 28.2%, 제조업 6.1%, 기타(전기·가스·수도업) 4.2%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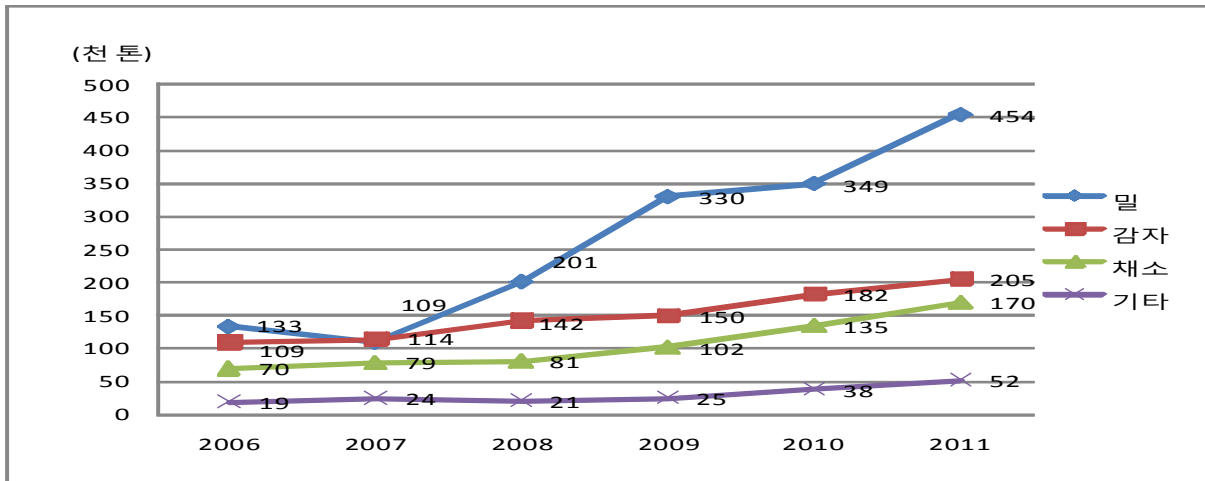
가. 농업

□ 밀과 감자 중심의 곡물 생산

○ 2009년 곡물 생산량은 약 61만 톤으로 전년 대비 36.4% 증가함.

- 주요 곡물의 생산량은 밀 33만 톤, 감자 15만 톤이고 채소 생산량은 10만 2,000톤임.

<그림 1> 곡물 생산량 추이



자료: Ministry of Food, Agriculture and Light Industry, 2010.

□ 감자는 자급하고 있으나, 밀과 채소는 수입에 일부 의존

○ 2009년에 밀과 채소는 각각 수요량의 3%, 50%가 수입으로 충당되었음.

- 쌀과 설탕도 최근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음. 쌀은 중국에서, 설탕은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함.

○ 한편, 열악한 기후조건, 소규모 영농 및 전문가 부족 등으로 경작가능한 토지의 30%만이 실질적으로 이용되고 있음.

□ 곡물생산량 증대를 위해 국영 곡물기업의 민영화 실시

○ 정부는 대부분의 국영 곡물기업에 대해 민영화를 실시하여, 민간기업과 개인에게 토지를 임대하였음.¹⁾

○ 생산량이 많은 5대 아이막²⁾ 소재 기업들은 이미 민영화되어, 전국 밀의 95.5%와 감자 및 채소의 53.7%를 생산하고 있음.

1) '토지소유권에 관한 법(2005년 개정)'에 따라 토지가 도시에서 사적인 목적(주거 또는 경작)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사유가 허용됨. 정부는 주거용과 경작용 토지를 각각 0.05ha, 0.1ha 이내에서 제공하고 그 밖의 경우에 토지를 최대 5년간 임대하되 5년까지는 추가연장을 허용함. 한편, 현재까지 몽골 내 사유화된 토지면적은 16ha(국토의 0.01%)임.

2) 행정구역인 아이막(aimag)과 그 하위분류 단위인 쑤(sum)은 각각 우리나라의 도(道)와 시(市)에 해당함.

<표 1> 곡물의 5대 아이막별 생산비중

단위: %

구 분	셀 렌 지 (Selenge)	투 브 (Tuv)	불 간 (Bulgan)	후스굴과 다르한울 (Khuvsgul, Darkhan-Uul)
밀	59.6	12.7	14.9	8.3
감자 및 채소	22.2	19.1	6.4	6.0

자료: Mongolian Investment Seeking Projects, 2010.

□ 민간투자 확대로 채소 생산도 증가

- 최근 채소 생산에 대한 민간투자가 확대되고, 생산업체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
- 전체 농업 생산 중 과일과 채소는 2%로 비중이 적지만, 채소 수요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온실을 통해서도 경작됨.

나. 목축업

□ 염소와 면양이 총 가축 수의 88% 차지

- 2008년 총 가축 수는 4,582만 두로 전년 대비 7.5% 증가
- 주요 가축은 염소(2,000만 두, 전체의 46%)와 면양(1,840만 두, 42%)이며, 그 외에는 소(250만 두, 6%), 말(220만 두, 5%), 낙타(30만 두, 1%) 등임.
- 바얀혼고르(Bayankhongor), 불간(Bulgan), 다르한 울(Darkhan-Uul) 및 오르혼(Orhkon) 아이막에서 염소와 면양 등 가축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.
- 한편, 종별 가축 수는 몽골종 4,087만 두(89.2%), 우량종³⁾ 250만 두(5.5%), 수입종 179만 두(3.9%), 잡종 64만 두(1.4%)임.

3) 우량종은 몽골종 중 품종이 우수한 가축을 지칭함.

<표 2>

종별 가축수 현황

단위: 천 두

구 분	2004년	2005년	2006년	2007년	2008년
수 입 종	1,212	1,521	1,783	1,998	1,794
소	27	22	30	33	28
면 양	1,013	1,205	1,411	1,575	1,418
염 소	172	294	342	390	348
잡 종	451	358	505	476	642
소	54	56	62	68	79
면 양	74	54	58	60	99
염 소	323	248	385	348	464
우 량 종	1,886	1,951	2,262	2,345	2,505
낙 타	6	8	10	10	11
말	34	38	35	38	30
소	24	29	22	20	13
면 양	801	866	997	983	1,013
염 소	1,021	1,010	1,198	1,294	1,438
몽 골 종	26,367	28,694	32,720	38,064	40,876
낙 타	251	246	244	251	255
말	1,971	1,991	2,080	2,202	2,157
소	1,737	1,857	2,054	2,305	2,383
면 양	11,686	12,885	14,815	16,990	18,362
염 소	10,722	11,715	13,527	16,316	17,719

자료: Ministry of Food, Agriculture and Light Industry, 2010.

□ 반복되는 흑한과 폭설로 인한 피해⁴⁾로 가축 수 감소

- 2009년 말~2010년 초에는 흑한과 폭설로 총 가축 수(4,400만 두)의 16%에 해당하는 670만 두가 동사함.

□ 중국, 러시아 및 일본 등에 캐시미어, 양모 등 수출

- 연평균 양모 2만 2,100톤, 캐시미어 6,642톤, 낙타모 1,330톤, 육류 17만 톤, 가축 840만 장, 우유 3억 3,500리터를 생산함. 이 중 양모의 68.2%, 캐시미어의 20.5%, 육류의 12.9%를 중국, 러시아 및 일본 등으로 수출함.

4) 극심한 강추위와 폭설을 동반하는 몽골의 겨울철 기후 현상을 저드(Dzud)라고 함.

- 캐시미어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54개의 캐시미어 생산기업(국내 기업 6개, 합작기업 48개)이 있음.
- 몽-중국간 합작기업이 전체 해외 합작기업의 54.1%인 26개임.

2. 농목축업 발전의 저해요인

□ 자연재해에 따른 유목민의 수입원 감소와 채무 증가

- 시골 거주인구의 약 80%가 유목민인데, 저드 피해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음.
- 몽골 식품·농축산업부에 따르면, 유목인구의 67%가 저드 피해를 입었고, 이들 중 6,500가구는 소유 가축이 모두 동사하여 극빈층으로 전락함.
- 2010년 6월 기준 전체 유목민의 35%가 상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가축이 동사함에 따라 수입원이 없어 채무불이행 상태에 처함.

□ 인구가 방대한 국토에 산재하여 효율적 정책집행 곤란

- 2010년 4월 기준으로 농목축업 종사 인구는 약 59만 명(고용인구의 58.1%)인데, 이들이 방대한 국토에 산재해 있어 정부의 보조금과 정책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.

□ 취약한 인프라 외에도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가공업체 부재

- 농목축업 가공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량이 매우 적어, 수출품 중 85%가 원자재이고 약 10%만이 가공품임.
- 주요 수출품인 양모와 캐시미어는 대부분 원자재 상태로 수출되며 소가죽 중 80%, 양가죽 중 90%, 염소가죽 중 16% 등이 반가공 상태로 수출됨.

- 2008년 육류는 22만 3,100톤이 가공되어 1만 200톤(4.6%)만이 수출되었음.
- 전국에 90개의 우유가공시설이 있으나 연중 운영되는 시설은 20개에 불과하여 전체 우유생산량의 3%(1,300만 리터)만이 가공되고 있음.

□ 재정부문이 취약하여 체계적 지원 미흡

- 2008년에 광업부문 호조에 따른 법인세와 초과이윤세 수입 증가 등으로 재정 수입이 전년 대비 29% 증가하였으나 재정수지는 GDP 대비 4.9%의 적자를 기록함.
-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전반적 경기침체로 재정수입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, 사회보장비 등의 지출증대로 재정적자는 GDP의 6.5%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됨.
- 2009년 3월 국회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(농업 지원, 수출 촉진 및 인프라 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)을 결의하였음.

3. 정부 정책

□ 재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지원

- 정부는 2010년 저드 피해의 복구를 위해 12개 아이막 등에 498만 달러를 지출하고 건조 1만 6,000톤도 제공하였음.
- 국내외 구호자금(국내 기업, 개인, 비정부 기구 56만 4,300달러, 외국정부 190만 5,400달러, 국제기구 2만 6,000달러)을 활용함.

□ 현대적 농기계와 기술서비스 제공 및 목초지 보호 추진

- 정부는 식량 증산을 위해 기업과 개인에게 트랙터 292대와 콤비인 74대, 농경 트레일러 및 기타 장비 256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노후된 농기계의 65%를 교체함.

- 목축업 종사자들에게는 구매자금의 50%를 지원함으로써, 소형 트랙터 415대, 건초와 사료 생산에 사용되는 중소형 장비 12대를 공급함.
- 몽골개발자금을 통해 1,500개 기업과 개인에게 7,800톤의 디젤유를 제공하고 유류비는 가을 추수 때 회수함.
- 11개 아이막에 기술서비스 센터를 설립함.
- 목초지 조성에 장애가 되는 쥐와 메뚜기 퇴치를 위해 147만 달러를 지출함.

□ 우물 신규 건설과 재보수를 통한 식수원 확보

- 전국에 총 668개의 우물을 새로 건설하고 218개의 우물을 재보수하여 3,500가구 및 250만 두 가축의 식수원을 확보하였고, 130만 ha의 신규 목초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됨.
 - 우물의 건설과 재보수에 각각 587만 달러, 73만 달러를 지출함.
- 최근 바얀혼고르, 불간, 고비알타이(Gobi-Altai), 도르노고비(Dornogobi), 도르노드(Dornod) 등 10개 아이막에서 508개의 수맥이 발견되어 식수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됨.

□ 집약농장(Intensified Farm) 운영을 통한 가축의 품종개선 추진

- 2008년부터 정부는 1,000마리 이상의 개량종 소를 14개 아이막에 보급하고, 2009년에는 지원금(50만 달러)과 함께 수입 젖소 300두를 투브와 셀렌지 아이막의 12개 기업에 공급하는 등 집약농장을 통해 가축의 품종개선과 목축업 생산량 증대를 추진함.
 - 집약농장 사업은 목축업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2005년부터 러시아, 중국, 독일, 프랑스, 캐나다에서 수입한 가축을 보급하여, 국내산 가축의 품종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, 집약농장은 대부분 울란바타르와 투브 아이막에 위치하고 있음.

<표 3> 집약농장의 가축 수 현황

단위: 두, 마리

구 분	2006년	2007년	2008년
젖 소	8,012(395) ¹⁾	10,070(494)	12,648(412)
소 ²⁾	1,334(7)	1,705(10)	5,285(48)
면 양	6,750(13)	7,350(15)	30,619(57)
돼 지	8,948(72)	10,000(79)	11,842(172)
닭	390,174(81)	395,200(111)	307,164(225)

주: 1) ()안의 수는 농장 수입.

2) 식용소를 지칭함.

자료: Ministry of Food, Agriculture and Light Industry, 2010.

4. 전망

□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, 전국에 산재한 생산기반, 재정적자 등으로 농목축업의 비약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

○ 열악한 기후환경과 전국에 산재한 농목축업 종사자들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는 집약농장을 통해 농목축업 생산환경을 개선하기는 곤란함. 취약한 재정상태도 농목축업 분야의 강력한 정책을 뒷받침하기는 어려움.

- 재정수입의 상당부분을 IMF, ADB, 세계은행 및 선진국의 원조에 의존함.

○ 농목축업은 세계 및 국내 경기 회복에 힘입어 지원이 확대될 경우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나, 몽골의 내부 요인을 고려할 때 비약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.

조사역 박종국 (☎ 02-3779-6673)
E-mail: parkjk@koreaexim.go.kr